

# 경제성·타당성 확보...광양만권 미래첨단국가산단 조성 속도

### 용역결과 발표...생산유발 3조5177억원·고용유발 1만 4100명 등 세풍·울촌산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도, 첨단산업 집적화 가능 전망

전남도가 추진 중인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 사업이 3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용역 결과 확인됐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기반산업을 대신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비용 편익 비율(B/C)이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이 '1'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산단의 국가산단화를 적극 권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단지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로봇(AI), 바이오, 수소차,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국가 전략거점으로서 필요성과 경제성,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산업

단지가 조성될 경우 3조 5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부가가치 1조 2684억원, 고용 유발 효과만해도 1만 4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산단의 순현재가치는 1025억원으로 내부수익률(IRR)은 4.88%로 측정됐고, 특히 비용편익비율이 1.055로 국가사업으로서의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단지 부지는 순천·광양 일원에 총 396만㎡ 규모, 1조 20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지형이 평탄하고 항만, 연계 산업,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근 광양만권 산업벨트와 석유화학·철강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기존 세풍·울촌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광양만권 국가산단 입주의향 기업은 117개사로, 유치업종은 이차전지, 금속가공, 전기·기계·운송장비 등 67개 품목에 달한다. 특수합금·금속복합소재 및 연구시설 등도 포함되면서 첨단산업 집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건의, 국비 확보, 민간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선 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단지는 단순한 산업 인프라를 넘어 전남의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기술 전략화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남형 국가산단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자노트

## 광주시 입맛대로 재난 대응



김진아  
사회부 기자

"화재 현장 연기는 몇 모금으로도 인명을 앗아가는, '독가스'에 가깝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광주의 하늘이 검게 뒤덮은 며칠 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이렇게 타이어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의 실체를 설명했다.

화재 발생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광주시는 "대기질 측정결과 현재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재난안전

문자를 광주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정작 배출된 연기 속 중금속 측정은 이 때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뉴얼이 없다'는 게 지연된 이유였다. 시민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했던 19일에는 문자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중금속 측정 결과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항목을 비공개했다 화재가 마무리된 28일야야 알렸다. 수십 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광주시 입맛대로였다.

광주시가 '시민 알권리'를 강조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는 제맛대로였다.

법적으로 대기 오염도 분석에 쓸 수 없는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금지한 기준이었다. 해당 기준을 왜 사용했는지 물었다더니, "환경청에 물어보시라"는 식의 나 몰라라 답변을 했다.

비교하거나 판단 근거로 삼을 기준이 아닌데도 멋대로 활용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검출)됐다'는 식의 판단을 내려 시민들에게 '안전하니 외출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불러오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그렇게 써서 보내준 것"이라고 외면했다.

환경청은 "달리 적용할 지표가 없었다"고 했다. "참고치로 적어뒀을 뿐"이라고도 했다. 대신, 2종류 이상의 여러 물질이 한꺼번에 대기에 누출되면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언급은 쏙 빠졌다.

매뉴얼도 없어 시기를 놓치는 무능함과 시민 안전보다 자신들 업무 편의에 맞춰 공개하고 측정하는 무

신경함, 자신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함, 여기에 시민들 알권리 보장이자 자신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는 뻔뻔함까지 갖췄다. 광주시의 투명 행정이란 이런 것인가.

불과 2년 전 대선에서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를 겪고도 여태 매뉴얼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는 투다.

자신들 입으로 '독가스'라고 평가하더니, 제 때 대응하지도, 제대로 측정하지도, 솔직히 공개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이해를 요구하면 시민들이 다 이해해줘야 하나.

과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까.

광주시는 직접 시민들에게 나서 안전을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고 재해의 위험도를 측정할 기준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납득할 행 정 절차를 세워야 한다. '친환경 도시', '안전 도시'라는 구호가 헛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광주시의 역할이

다. /jingg@kwangju.co.kr



광주시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 광주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재일동포 기업 대상 신규 투자 유치 전개

###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AI 지구·미래차 산단 인프라 우수성 소개

광주시가 재일동포 기업 대상으로 광주시의 인공지능 지구와 미래차 산업단지 인프라의 우수성을 알리고 투자협력을 논의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서울에서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 광주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제1회 경영세미나'와 연계해 열렸다.

한일전기그룹, 대한합성화학공업, 아비코전자 등 협회 소속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투자환경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등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광주의 전략산업과 우수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유망기업의 신규 투자를 호소했다.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차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과 투자 인센티브,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 등을 강조했다.

AI 생태계·미래차산업 역량·국가AI데이터센터 및 팹리스 반도체 기업 유치 성과 등 광주의 핵심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광주시는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실질적 교류를 통해 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하고 있다. 설명회 참석 기업 중 투자에 관심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 MOU 체결 등 후속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AI와 미래차 산업 중심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며 "한국에 투자한 재일동포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는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국내 투자 촉진과 한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단체로 신한금융지주, 제주은행, OK금융그룹 등 68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도, 전국 최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 9월 30일까지 36종개 품목 대상

전남도는 1일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매알선센터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생산 정보 부족에 따른 시기별 물량 확보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알선센터 이용 대상은 과수·채소류 3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중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다. 벼와 보리는 제외된다. 계약재배를 했으나 공급처의 상황 변화로 납품이 어려워진 농가

도 긴급 구매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과수는 9월 이후 수확하는 작물을, 채소류는 6월 이후 파종이나 정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품목별로 물류센터에서 구매가 결정되면 센터에서 매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할 계획이다.

신청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알선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